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9. 3.(목)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 보험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중기, 팀장 이재연, 사무관 연규성, 주무관 유세형 • ☎ (044) 201-3338, 3347	
공동 배포	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 전략기획부문 공제감독부문	담 당 자	• 전략기획부문장 김성완, 파트장 이차민 • 공제감독부문장 김득준, 파트장 박옥근 • ☎ (02) 6101-1606, 1612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2주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...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

- 민원처리 만족도(44.4%→61.7%) · 분쟁 조정 전 합의율 크게 높아져
- 수익성 · 유동성 등 평가부문별 핵심 재무지표 개발로 재무건전성 강화

□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원장 박종화, 이하 '진흥원')이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 사업자*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'18년 9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.

* 사업용자동차(택시 · 화물 · 버스 · 개인택시 · 전세버스 · 렌터카)는 교통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반면 자가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

□ 지난 2년간 진흥원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.

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개선

- 사고접수부터 공제금(보험금)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, 3call*제도 도입 등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

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**가 높아졌다

* 안심콜(접수 안내), 중간콜(진행상황 안내), 종결콜(최종 결과 안내)

**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는 진흥원 이관 후 44.4 → 61.7% 향상('19.상)

- 또한,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격월로 개최하던 공제분쟁 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 제도(경미한 사안 처리)를 도입하여 개최 주기(격월 → 매월)를 단축하고 진흥원에서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의 사전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 전 합의율도 높여 가고 있다.

* 조정전 합의율 : ('18) 13.3% → ('19) 17.8% → ('20.6) 30.0%

②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

- 그동안 손해보험사만 참여하던 보험범죄 공동조사*에 6개 공제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체계('19.9)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사기에 취약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.

* 보험범죄로 보험금을 편취당한 보험사들이 보험범죄 적발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

- 또한,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 간 구상금 분쟁*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진흥원 간 업무협약('20.6)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공제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.

* 근로자의 출·퇴근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처리 시 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 상이에 따른 분쟁

③ 재무건전성 강화

- 공제조합별로 서로 다른 재무제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일하는 회계처리 표준화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였고, 재무현황 모니터링 핵심지표*를 개발하여 재무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
* 수익성/안정성/유동성 등 평가부문별 핵심재무지표 선정

- 또한, 공제조합별 시스템이 서로 달라 재무상태, 공제계약, 보상 현황 등 통계자료 관리가 어려웠으나,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수집·분석 등 자동차공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.

□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앞으로 ‘고객만족도 개선, 재무건전성 강화, 경영투명성 확보’라는 목표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- 첫째, 민원 신청인이 민원 신청, 처리과정, 처리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흥원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(‘20.11)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 마련(‘20.12) 등을 통해 보상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- 둘째, 민·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점검에 진흥원도 참여하여 보험금 누수방지에 기여하고, 사업용 차량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용 차량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- 셋째, 예·적금에 한정된 자산운용 방법을 리스크 관리를 통한 다양한 자산운용 방법 도입으로 공제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공시 항목 확대*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.

* 대차대조표 사무소 게시 → 재무제표, 조직·인력, 경영지표 등 누리집(홈페이지) 공개

□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종기 과장은 “앞으로도 진흥원을 중심으로 자동차공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규성 사무관(☎ 044-201-48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설립(자배법 제39조의 3)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위해 2018년 9월 개원

2. 주요 사업(자배법 제39조의 4)

- ◆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
- ◆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·추진 지원
- ◆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및 보상제도 건의
- ◆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교육, 홍보 및 보상 통계·자료 수집

3. 조 직(2부문, 8파트) 및 인원

